



동우컬럼

한 사람의 영향력

지난 수요일에 나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
었다. 얼마 전 우리 교회를 찾아온 베트남
선교사 폴 킴(Paul Kim)으로부터 온 소식
이다.

그는 유튜브(YouTube)를 보고 나를 찾아왔다. 당초 사흘정도 한국에 체류할 생각이었으나 은혜를 받고는 기도원집회까지 참석하고 돌아갔다. 돌아간 그가 바로 일을 냈다. 8월에 5,000명의 현지인 목회자 세미나를 비롯해 대집회를 호치민시에서 배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베트남 30개 교파 총회장과 곧 미팅을 가질 것이라고 전해왔다.

그렇다. 한 사람만 변화되어도 세상은 변한다.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되었고, 요셉 한 사람이 애굽과 동족과 가족을 살렸다. 에스더 한 여인으로 인해 유대민족의 운명이 달라졌고, 룻으로 인해 그의 가문이 일어났으며,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복음화되었고, 그의 13서신은 영원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했다. 우리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구원되었음을 우리는 잘 안다.

어디 성경의 인물뿐이라. 믿음의 사람, 링컨 한 사람으로 인해서 노예해방이 이루어졌고, 루터 한 사람으로 인해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며, 웨슬러 한 사람이 죽어가던 영국 교회를 살렸다. 선교사 하나가 이 대한민국을 복음화 하였고, 영향력 있는 선교국가로 만들었다.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은 이처럼 크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신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12:24).

내가 한 명 앞에서든, 열 사람 앞에서든, 십만 명 앞에서든 목청을 돋우며 최선을 다해 설교하는 이유는 이 중 한 사람만 변화되면 세상을 움직일 것이란 생각에서다.

이현숙 선교사 하나가 변화되어 남미를, 슬라바 목사 하나가 변화되어 소비에트 연방을 복음화 했던 것처럼, 폴 킴 선교사를 통해 베트남이 복음화 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봄의 완연한 기운이 지면 위로 피어오르는 계절은 생명으로 충만하다. 긴 겨울 숨죽였던 생명들이 지면 위로 움터 오르는 봄은 그래서 희망과 기대로 가득한가 보다.

속이지 않는 땅의 정직함을 믿고 농부는
가을의 결실을 기대하며 부지런히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며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정성을 다한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도 이와 동일하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기도는 나의 진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요, 나의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따라서 기도를 하다 그만두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한 셈이다.

증했다. 그 세월을 기도로 살았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이는 또한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 것이 없다는 믿음의 웅변이기도 하다. 목사님은 그의 간증에 몹시 감동하셨다며 지난 30여 년 동안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한 삶을 간증하셨다.

“내 삶은 기도의 일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또 집회가 있을 때는 하루 6, 7시간을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러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10만 번이 아니라 백만, 천만 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제복도 있습니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다 포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개 교파와 연합하여 준비 중이라며, 올 8월 16, 17일 양일간에 베트남 호치민(Ho Chi Minh) 시에서 개최하겠다고 연락해 왔다. 또한 남미 이현숙 선교사는 베네수엘라(Venezuela) 루이스(Luis) 목사로부터 올 5월에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데 목사님의 집회를 도왔던 인사가 선출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고 수도 카라카스(Caracas) 승리의 광장의 100만 집회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모두 목사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제복들이다. 동아시아 지역에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는 지속적인 기도가 응답 받은 것이요, 10여 년 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빛속에 찾아가셨던 승리의 광장, 거기에서 기도했던 100만 집회의 꿈, 목사님은 여전히 이에 대한 기



목사님은 늘 새로운 날을 맞을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기대로 시작한다 하신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와 동경, 이 모든 꿈들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기에 펼쳐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인내할 수 없다.

지난 춘계산상집회 둘째 날, 낮에 목사님을 찾아온 어느 여(女)목회자는 지난 해 가을집회에 참석하여 크게 깨닫고는 10만 번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을 받은 기쁨보다도 자신이 포기하지 않고 10만 번의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 눈물로 감사한다고 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이 없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지금
까지 9차에 걸친 기도성회를 열며 기도
해 오신 것들이 곧 이어질 남북정상회담
과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현실화되고 있
다.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피어나고 있
는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한방을
흘리지 않는 평화통일, 꿈꾸는 듯한 역사
로 응답해주실 것이란 믿음이 있기에 가
능한 일이었다고 믿는다.

베트남(Vietnam)의 폴 킴(Paul Kim)
선교사가 호치민 시에서 5천명의 목회
자 세미나를 포함한 대집회를 현지 30

도를 쉬지 않고 계신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무더위와 거센 비바람의 계절을 지나며 정성들여 가꾼다면 땅은 반드시 결실로 응답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다. 기도의 씨를 심고, 입술로 시인하며 꿈과 기대를 갖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결실로 응답하신다. 이는 맛본 자만이 아는 남모를 기쁨이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돈이나 명예나 학식으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왕상18:15~40)



지도자는 색깔이 분명해야 한다

우리 예수중심교단은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교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단의 분명한 색깔입니다.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애매한 고난을 받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에는 타협이 없고, '병사는 죽어도 전쟁은 이겨야 하고 핍박과 순교가 온다' 해도 예수는 증거 되어야 한다'는 제 목회철학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색깔이 분명하지 않은 지도자가 거느리는 국가나 기업, 교회나 단체, 그리고 가정은 망망대해에서 나침반을 잃고 표류하는 배와 같아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보다 무서운 것은 우유부단한 지도자입니다. 그런 지도자는 한 마디로 무능한 지도자입니다. 자고로 지도자는 색깔이 분명해야 하고, 따르는 무리에게 확실한 목표를 제시해줘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최후가 이르렀음을 알고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부터 우리 조상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언급한 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호한 어조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24:14~15).

좋은 사람보다 분명한 사람이 되라

여호수아는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 번 고백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절대순종과 유일신앙을 결단하도록 했습니다. 지도자로서 확실하고 분명한 색깔을 보여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견고한 신앙을 제시해준 것입니다. 역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는 큰 효력을 발휘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

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이다"(수 24:16~18). 신앙세계에서 중간지대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완전한 이분법만이 존재합니다. 즉 순종 아니면 불순종, 생명이 아니면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말씀을 보겠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계속되던 어느 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 끝나게 될 것을 아합에게 알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극심한 가뭄이 아합이 바알을 숭배한 결과임을 알려라고 한 것입니다. 아합과 마주한 엘리야는 어느 신이 참신인지 밝히



총회장 이초석 목사

히 자고 제의하 자 아합도 이에 동의하고 갈멜산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곧 850대 1의 정면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엘리야는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찌니라"(왕상18:21). 겉으로는 하나님을 좇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분명한 신앙을 가질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850대 1의 대결에 들어갑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자기들의 신에게 아침부터 열심히 기도를 드렸으나 그 신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는 등, 온갖 광란적인 방법을 동원하며 기도하였으나 그들의 바알 신은 침묵하였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12지파의 수호대로

12돌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주위에 도랑을 판 후 송아지 제물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곧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 제단은 물론이거니와 도랑의 물마저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왕상18:39)라고 외쳤습니다. 엘리야는 분명한 신앙노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보여줬던 것입니다. 역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요즘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목사의 신앙노선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충만이 아닌 지식충만의 신앙, 타종교와 타협하고 손을 잡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가기 때문에 양떼들이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다 구렁이에 빠지는 법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계 3:15~16). 신앙의 회색분자들, 즉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넣은 채 기회를 노리는 자들을 토해버린다고 하신 것입니다. 음식이 미지근하면 맛도 없지만, 대장균이 득실거려서 그 음식을 먹었다가는 다 식중독에 걸립니다. 그런 음식이 같 곳은 쓰레기통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신앙이 미지근한 자들, 기회주의자들이 갈 곳도 오직 한 곳, 지옥뿐입니다. 다니엘처럼 사자 굴에 들어가는 위험 앞에서도 신앙이 확실해야 합니다. 사드락

과 아벳느고, 메삭처럼 풀무불에 던져질 상황 앞에서도 분명한 신앙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도우시고 높이시는 것입니다. 세상도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자를 가만 놔두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이런 자를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다

돈과 명예,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선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방백을 의지하지 않고,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욥5:8)고 했던 욥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느1:3~4).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그가 하만의 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될 위기상황이 되자 그녀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 금식하며 아뢰었습니다(에4:16).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주장하사 하만이 장대에 달리는 역전극이 펼쳐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부림절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중도도 없고, 적당히도 없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세상을 섬길 것이냐' 결정해야 합니다. 돈과 하나님, 명예와 하나님, 권력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상황에서 당신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둘 다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마6:24).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한 왕이 많은 처첩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더니, 어떤 자는 돈, 어떤 자는 명예를 구하였으나 가장 어린 첩은 보자기를 펼쳐며 '임금님만 이리 들어오시면 된다.'고 하자 그 어린 첩을 정비로 삼았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하나님만 확실히 붙잡으면 모든 게 가합니다. 분명한 신앙인이 됩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히3:14).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능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이슬처럼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

깊이를 알 수 없는 목사님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아들 녀석이 한구석에 앉아 무어라 구시렁거리고 있었다. “왜 내 이빨은 안 빠지냐고!” 도대체 뭘 소린가 싶어 물어봤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걸작이었다. 딸아이가 요사이 한창 유치(幼稚)가 빠지는 모양이다. 그래 병원에 가서 발치하면 한 개당 오천원이 드는데 그냥 집에서 뽑으면 할머니가 삼천 원씩 주기로 했단다. 그런데 이번에 한꺼번에 세 개가 빠지는 바람에 보너스 천원을 더해 무려 거금(?) 만원을 벌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작 3분 늦게 태어난 자신은 도무지 이가 빠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구나? 그래서 공돈 받을 욕심에 멀쩡한 생 이빨을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예구... 아들이! 때가 되면 다 알아서 빠지지 않겠니? 그러나 나 또한 내 어린 아들처럼 동일하게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으로 많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권면한다. 여기서 ‘때를 따라’는 ‘적시에’란 의미다. 그렇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가장 좋은 때, 적합한 때를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 때를 따라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신다”(시107:9).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망각증과 조급증에 있다. 어제도 인도하셨고, 오늘도 인도하시며, 내일도 인도하실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다. 뭐든 순식간에 똑딱 처리되길

바라는 조급함이 문제다. 결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든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다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았는가! 그러한 도돌이표 신앙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가!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저 팔레스타인 지방의 기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바로 ‘우기(雨期)’와 ‘건기(乾期)’가 그것이다. 우기라고 비가 항상 오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건기 때는 심한 경우 6개월 간 비가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럼 저 사막과 같이 황량한 가나안 땅에 어떻게 생명이 움돋고 사람과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바로 이슬에 있다. 강수량이 절대 부족한 팔레스타인에서는 지중해와 요단강의 습도와 심한 일교차로 인해 연간 260일 이상 이슬이 내린다. 비가 오지 않는 6개월의 긴 건기 동안 식물과 동물들은 이 이슬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이슬이다. 이슬이 이렇게 눈에 잘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로 말미암아 저 팔레스타인 땅, 메마른 대지가 생명을 얻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 가슴에 느껴지지 않는다 해도 당신과 항상 함께 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바란다!

신현명 목사
yeddo1@hanmail.net

만나보면 곧 바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욕심에, 돈에, 이권 앞에 노출되면 속절없이 바닥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수 없이 보았다. 백억 대 재산가인 친구가 단돈 만원에도 바닥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다. ‘왜 그렇게 사느냐고 주위에서 아무리 핀잔을 줘도 꺾이지 않는다. 그렇게 악착같이 사니 지금의 재산을 유지한다고 믿는다. 친구가 내게 1억을 꾸고나서 그 인격이 바닥나는 것을 봤다.

첫 직장에 참으로 대단한 엘리트 선배들이 많아서 산처럼 느끼곤 했다. 내가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 한 3년 근무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다 보였다. 별 것 아닌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되었다.

예전에 거의 예수님과 비견될 정도로 굉장한 학식과 영성을 지닌 목사님을 스승처럼 섬겼었다. 그러나 그 뛰어나신 분의 가슴에 사랑이 없음을 보게 되니 실망스러웠다.

목사님께 돌아온 지 7년이 됐지만 아직 그 깊이를 알 수 없으니 감사한다. 기도원 집회 상담하실 때 곁에서 보조하면서 몇 시간씩 상담하시는 목사님을 보게 되면, 그 끝 모를 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며 그저 감탄에 감탄을 더하게 된다. 사랑과 지혜, 열정과 능력, 어느 것 하나 나와 견주어 볼 수 없으니 감사한다. 적어도 스승이라면, 목사라면 이 정도는 꽤야 할 텐데 생각하며 내 자신을 돌이키며 부끄러움을 느낀다.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며 배움을 지속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아무리 바닥을 보려 해도 그 깊이와 넓이를 가늠할 수 없는 목사님. ‘나보다 더 큰 자가 나와라.’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응답을 받으실 수 있을까? 나로서는 언감생심이고 족탈불급(足脫不及)이다.

이광주 전도사
leekjilkj@naver.com



:: 교단소식 ::

부지런한 자의 밭에는 잡초가 없다



지난 11일, 총회장 목사님은 광주집회와 관련해 격려차 광주교회를 방문하셔서 예배를 인도하셨다.

총회장 목사님은 앞으로 예정된 광주집회의 성공은 물론이요,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부지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부지런한 자가 성공합니다. 그런데 ‘부지런’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부지런할 수 있는 겁니다. 무작정 ‘빨리빨리’ 하며 서두르는 것이 부지런한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의 정의는 ‘책임감’입니다.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 마음을 두라’(잠27:23)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는 책임감을 가

지라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지면 부지런해집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을 찾아살피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녀총각 때는 자기가 잔이불 하나 갠 적이 없던 사람도, 양말 한 짝 안 빨아본 사람도 달라집니다. 쓸고 닦고 합니다. 혹여 아이라도 낳으면 부지런을 떨니다. 책임감 때문입니다.

누군가 약속을 했다 칩시다. 약속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는 일찌감치 나가서 자신을 정리하고, 오늘 만나서 나눌 이야기 주제나 상대에 대해 연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책임감이 없는 자는 동이 터도 이부자리 위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게 됩니다. ‘누가 하겠지’ 하며 방관자의 심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목사와 전도사,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자를 보면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살폈고, 미리 공부했고,

미리 연구했고, 미리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장소에 미리 나갔으니 여유가 있는 겁니다. 미리 공부해봤으니 시험 치는 날이 와도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그 때가 되어서야 허둥지둥하고, 조급해하다 실수하고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 6장에는 개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개미는 두령도, 간역자도, 주권자도 없으나 미리미리 겨울에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주어진다면 자기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축구에서 골키퍼는 골대에 배치되어야 골을 잡아냅니다. 이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상대 골이 날아들어도 서로 미루다 골을 먹게 되고 시합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할분담이지요. 그런데 역할을 나누는 것의 기본은 그 분야에 잘 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으로 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적성에 맞는 사람, 그 자리에 격이 맞는 사람을 앉혀야 일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코드가 맞는 사람, 곧 마음이 맞는 사람을 써야 합니다. 아무리 명품구두라도 발에 맞지 않으면 고생하는 것과 같

은 이치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실 때 ‘자기의 원하는 자’(막3:13)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을 뽑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툭 하면 담장에 호박 떨어지는 소리’인 줄 알고 호홉이 맞을 뿐 아니라 서로 간에 오해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광주교회 담임목사는 물론 교회의 중추적인 일꾼들이 책임감 있는 부지런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맞는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광주교회는 부흥 성장할 것이고, 예정된 광주집회도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밭에는 잡초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한 자가 되어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터에 잡초가 없고, 실한 열매만 주렁주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얻고, 지금 걷지 않으면 내일 숨이 턱에 닿게 뛰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영·혼·육의 성공은 게으름을 떨치고 매사 부지런히 준비하는 것이다.

기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

주님이 주신 재능, 활약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새와 짐승들을 만들었을 때, 어느 날 새들이 모여서 심각하게 의논했다.

“정말 걱정이야. 우리 새들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 몸집도 작은데다가 빨리 달릴 수도 없는데 어떡하지?”, “맞아 잡아먹히기 딱 알맞지. 사나운 짐승들이 우리를 잡아 먹으려고 맘만 먹으면 우린 꼼짝없이 죽고말거야.”

말을 하다말고 새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들의 처지가 참으로 처량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참 하나님도 너무 하셔. 왜 우리 새들만 이렇게 보잘 것 없이 만들었을까?”, “너무 불공평하신 것 같아. 우리 이려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따져보면 어떨까?”, “그거 좋은 생각이네! 우리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달라고 하자.”

그길로 새들은 우르르 하나님께로 몰려갔다. “무슨 일로 이렇게 몰려왔는고?”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시자 새들은 입을 모아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를 달라고 요구했다.

“하나님! 잘 들어 보세요. 뱀은 무서운 독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고요.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요. 그리고 말은 빨리

:: From internet ::

가정

멋진 작품을 그리고 싶어하는 화가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나고 물었다.그러자 신부는 수줍어하며 대답했다. “사랑이지요. 사랑은 가난을 부유하게, 적은 것을 많게, 눈물도 달콤하게 만듭니다. 사랑 없이는 아름다움도 없어요.”

도망칠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있지만 우리 새들은 무엇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되나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새들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흐흠, 말을 듣고 보니 그렇구나. 너희들의 요구가 당연하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멋진 날개를 달아주마.”

하나님은 새들에게 날개와 깃을 달아주셨습니다. “아이, 좋아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깃과 날개를 얻은 새들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런데 얼마 후 새들은 다시 풀이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와서 이렇게 호소를 했다. “하나님, 날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도리어 질질 끌려 무거운 짐만 될 뿐이에요. 무거운 날개 때문에 몸이 무거워서 예전처럼 달릴 수조차 없게 됐어요.” 불평에 찬 새들의 녀두리를 들던 하나님은 한숨을 쉬며 말 씀하셨다.

“쫄쫄, 이 어리석은 새들아.” 하나님의 말에 새들은 놀라서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하나님을 쳐다보았다. “너희들은 날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고 있구나. 날개를 제대로 사용해볼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단 말이나? 너희들에게 두 날개를 준 것

화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목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목사는 “믿음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간절한 믿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는 목사의 말에도 수긍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무엇이 있을 것만 같았다. 때마침 지나가는 한 지친 병사에게 물었더니 병사는 “무엇보다도 평화가 가장 아름답고, 전쟁이 가장 추하지요.”라고 대답했다.

은 날개를 지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다. 날개를 이용해서 하늘높이 날아가라는 것이다.아무리 힘센 사자가 덮쳐 와도, 호랑이가 쫓아와도 안전하게 날아서 도망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것이니라!”, “와~ 그러셨어요? 아, 날개는 하늘을 나는데 쓰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새들은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높이 날아오르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한다.

날개를 가지고도 나는 방법을 알지 못해 날 수 없었던 새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귀한 것을 가지고도 그 값어치와 가치를 제대로 몰라서 그대로 묵혀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 날개가 될 수 있는 귀한 재능이나 소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무거운 짐처럼 오히려 질질 끌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에는 여러 가지 값어치와 가치가 있다. 만 원짜리, 십만 원짜리, 백만 원짜리, 천만 원짜리 등등... 우리는 더 이상 없는 최고인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시고 사신 예수님짜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수님짜리답게 행동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일본 서동경교회 김경숙 목사

그래서 화가는 사랑과 믿음과 평화를 한데 모으면 멋진 작품이 될 것 같았다. 그 방법을 곰곰이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온 그는 매우 놀랐다. 집에 있는 아이들의 눈 속에서 믿음을 발견한 것이다. 또한 아내의 눈에서는 사랑을 보았으며,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에 평화가 있음을 깨달았다.

얼마 뒤 화가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품을 완성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정’이었다.

:: 생활 속의 잠언 ::

주(主)는 나의 목자되시니

얼마 전 유아원 관련 일을 보기 위하여 호치민시티를 방문했었다. 새벽에 공항에 도착한 나와 일행은 숙소가 있는 푸미흥을 가야했다. 일행들은 호치민이 초행길이었다. 나는 항상 택시 대신 그랩(Grab)을 이용하여 일을 보러 다녔는데 일행들을 편하게 모시기 위하여 공항 내에 있는 택시회사에 찾아가 택시를 예약했다. 공항 밖에 대기하던 회사 관리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우리를 주차장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우리 일행은 공항 부근에 모여 있던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었고, 세 번이나 차를 바꿔 타면서 모르는 사이에 약 삼백불의 돈을 털렸다. 다행히 주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고어웨이(Go away)’를 외치면서 엄청난 위기의 순간을 극복한 후 일행들은 무조건 내가 하자는 대로 따를 것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이틀간 관광지과 쇼핑을 다니면서 호치민 지리를 파악한 일행들은 공항에서의 악몽을 잊어버리고는 자신들

의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호치민 택시 기사들의 비행은 악명이 높다. 그래서 호출한 후에 5~10분을 기다려도 그랩을 타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눈앞에 있는 택시를 타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그들 뜻대로 택시를 타고 노트르담 성당으로 데려다 달랬더니 택시 기사는 멀리 성당의 탑이 보이는 곳에서 내려준다. 이곳이 아니니 부근까지 데려다 달라고 택시 기사에게 설명을 하는 중에 일행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어느 순간 내려있었다. 결국에는 목적지인 성당까지 한 시간 이상을 물어물어 찾으며 걸어가게 되었다. 그들은 멀리 성당의 탑만 바라보며 고생을 잔뜩 한 후에 이후로는 내 말을 무조건 따르겠다고 했지만 비슷한 상황은 계속 이어졌다. 사람들은 왜 이럴까?

호치민에서 그들의 고집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출애굽 장면이 떠올랐다. 모세의 말에 순종

하지 못하고 40년간 자기들의 뜻대로 이리저리 방황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 시절, 그들의 인간적인 속성이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속성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음을 느꼈다. 매주 교회의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만, 바로 잊어버리고 각자의 갈 길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을 호치민 여행을 통해서 확실히 보았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소중히 받지만,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목자 없이 방황하는 유약한 양의 모습을 떠올려본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복음송을 수십 년 부르지만 어느 순간 주님의 손은 저 멀리 두고 목자 없는 양으로 헤매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실소를 금치 못한다.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진실의 고백이 우리들 삶 가운데 메아리치길 바란다.

오자유
lovelyactor@naver.com

남편과 아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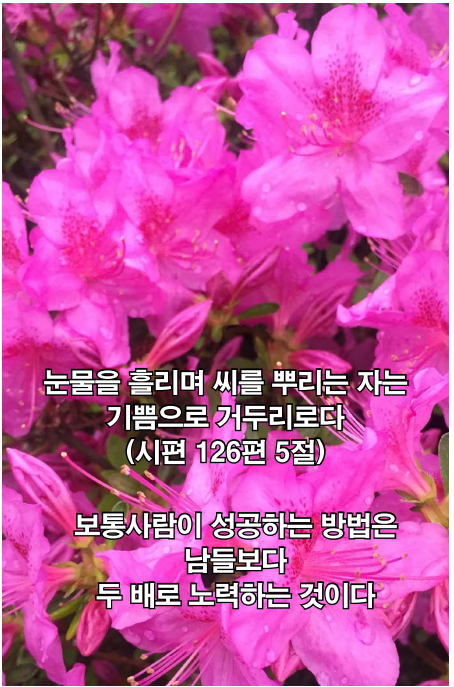
드라마를 보면 사랑하는 연인에게 결혼은 늘 해피엔딩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사도 바울은 쉽지 않은 결혼생활에 대해 일종의 결혼지침을 주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했다. 남편은 목숨 바쳐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을 넘어 순종까지 하라고 말씀했다.

사실 옛날처럼 허구한 날 전쟁하는 시대도 아니고, 목숨 바칠 일도 없는 요즘 시대엔 남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떨까? 이 땅에서의 목숨은 시간이다. 누구를 위해 시간을 쓰는 건 내 남은 생명을 할애해주는 것, 다시 말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아내에게 더 많은 시간을 써보자. 아내의 말이 지루하고, ‘빨리, 그래서 결혼이 댜데.’라고 말하고 싶어도 재촉하지 않고, 경청에 시간을 써보자. 살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는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다. 자신에게 관대하게 시간을 쓰듯 아내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 같이 한다는 말 아닐까? 또,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하루 종일 바깥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 죽을 것 같을 때도 있겠지만 죽을 각오로 집안일 좀 도와주자. 결코 죽진 않는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아내가 몇이나 될까? 남편이 목사님이라면 모를까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존경한다’는 말은 받들어 공경한다는 의미인데, 즉 ‘높인다’는 뜻과 비슷한 맥락이다. 남편을 키쳐세워주자. 신혼의 콩깍지가 씌워졌을 때와 달리 지금은 별 볼일 없어 보여도 큰일 할 사람처럼, 왕처럼 키쳐세워 주자. 무시하고 싶은 말이 나올 때 빙정거리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을 인정해주는 말을 하다보면 정말 그렇게 될 지 누가 아는가.

물론 하루아침에 부부생활이 확 달라지진 않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라도 실천해보려 노력한다면 그에 따른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을까?

박천영

post.naver.com/imsfriendly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

보통사람이 성공하는 방법은
남들보다
두 배로 노력하는 것이다